



물보라에 무더위 싹~ 광주지역 낮 최고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광주 동구 광추천 둔치의 인공폭포가 시원스럽게 물을 쏟아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결국 1년 연기

문화관광부 보고...2015년 7월 개관, 완공은 2014년 목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이 당초 목표였던 2014년에서 2015년 7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은 2014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광주일보 6일자 1·3면 참조> 15일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남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업무보고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오는 2014년까지 완공하고 2015년 7월에 개관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의 공정 여건(공정률 48%)을 감안하면 최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2014년 중반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2014년 말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완공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 뒤 2015년 7월에 개막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 개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5년은 광주 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이라는 점에서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12년 개관 예정이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로 2014년으로 미뤄진 이후, 다시 2015년 7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처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이 지연되는 데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형 국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행하는 등의 지를 보이기는 오려 지역 사업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병완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200억원대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2015년 7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만채교육감 수사 이석기 조준

선거비용 과다계상 CN커뮤니케이션즈 압수수색
곽노현·장휘국·김선동·오병윤까지 수사 확대 '파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14일 오전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과 2012년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홍보 등을 대행한 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전략그룹)와 여론조사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검사 2명 등 10명을 파견,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비례)이 최근까지 대표를 맡아 운영했던 이 업체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회계장부 등 서류 일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등을 압수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선거에서 당선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CN커뮤니케이션즈에 집행한 12억원 가운데 11억여원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의 개인 계좌, 선거 회계계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선거에 쓰인 비용과 보전 받은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장 교육감 측과 CN커뮤니케이션즈 측의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 교육감 등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에 선거홍보 등의 대행을 맡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물론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오병윤(서구)·김선동(순천·곡성) 의원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후보자들의 선거비 관련 자료를 압수해 같은 유형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보 교육감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후보자들에 대한 무더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9대 총선 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CN커뮤니케이션즈에 선거홍보를 맡기면서 수천만원을 지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은 장만채 교육감만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CN커뮤니케이션즈에게 대행을 맡긴 정치인 모두"라며 "수사 과정에서 선

거비 과다 계상 후 보전받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10년 선거 당시 교육감의 선거운동원 등 주요 관계자

를 불러 조사하고 선대본부장·회계팀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향후 수사 규모가 커질 경우 수사 인력 보강은 물론 대검 등으로의 사건 이첩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만채 도교육감 측 관계자는 "선거비용은 중앙선거위의 실사를 거쳐 보전받게 돼 있어 과다 계상은 있을 수 없다"며 "당혹스럽지만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조계종 "여수 불교도대회 중대표단 일방 철수 유감"

불교 조계종은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에서 중국 대표단이 개최식 불참에 이어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14일 발표문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사상으로 가득해야 할 불교도들의 순수한 국제 교류 행사가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조차 없이 일부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특히 자국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WFB의 정식 지부로 등록된 티베트 대표단의 참석을 인정

하지 않겠다는 중국 대표단의 주장과 행위는 세계 불교계가 추구하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에 바탕한 상호 유대와 평화의 추구라는 공동의 가치를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WFB 한국대회를 준비하고 협력해 온 조계종은 이에 대한 중국 불교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앞서 중국 대표단은 지난 12일 티베트 대표단이 방명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는 이유로 행사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태풍에 떠밀린 가거도 64t 테트라포드

'자연의 경고' 되새길 상징물로

태풍에 100여m 떠밀려 온 64t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생명의 돌'로 거듭났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태풍 무이파에 의해 부서진 테트라포드(tetra pod:네발이·사진)를 치우지 않고 10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 방파제에 설치하는 테트라포드는 4개의 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파도를 잘게 부수주는 역할을 한다. 당시 가거도항 방파제를 감싸고 있던 테트라포드 2000여개가 부서지거나 흩날렸고, 그중 하나는 12



m 높이의 방파제를 넘어 마을 바로 앞인 물양장까지 100m나 떠밀려왔다. 태풍 복구 과정에서 방파제나 육지로 올라온 다른 테트라포드는 모두 재사용하기 위해 옮겨졌지만, 이 테트라포드는 주민의 뜻에

따라 물양장 한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다. 주민들은 신안군에 이 테트라포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건의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한 인류에게 던지는 '자연의 경고'를 보여주는 상징물로 간직할 계획이다. 가장 조운찬(60)씨는 "물양장에서 작업하는데 불편이 커 여러차례 치우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당시 아픔을 기억할 수 있게 하자'고 해 그냥 두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이 돌을 보며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거도=오광록기자 kroh@

국립발레단, 광주 최초 공연!
'백조의 호수'
7.6~7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220-0541 |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광신대학교 한국가정주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광신대학교
☎ 062)605-1112, 1063

FIVB VOLLEYBALL WORLD LEAGUE
현대캐피탈 2012 광주 월드컵 국제남자 배구대회
광주염주체육관
6. 22(금)
14:00 대한민국 VS 프랑스
16:30 이탈리아 VS 미국
6. 23(토)
14:00 대한민국 VS 이탈리아
16:30 프랑스 VS 미국
6. 24(일)
14:00 대한민국 VS 미국
16:30 프랑스 VS 이탈리아
주최 | FIVB(국제배구연맹) | 주관 | 대한배구협회 Korea Volleyball Association | 후원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문화체육관광부